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4.10원 하락한 1,200.60원에 마감

26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불커를 완화 소식 및 반기말 네고물량에 전 거래일 대비 4.10원 하락한 1,200.6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00.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미국의 불커를 완화소식에 따른 리스크온 분위기에 반기말 네고물량이 더해지며 1,197.50원 까지 저점을 낮쳤다. 그러나 결제수요에 하단이 지지되었으며 장 마감 직전 솟커버에 낙폭을 축소하며 1,200.6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198.6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20.89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00.00	1200.80	1197.50	1200.60	1198.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23.68	1123.95	1116.44	1118.49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2	-1.14	-3.15	-7.71
결제환율(수입)	0.1	0.3	-0.58	-2.9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전망

코로나 불안에 美 경제재개 제동 ... 1,200원 중반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라 美 경제재개에 제동이 걸리며 1,200원 중반 중심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00.60원) 대비 3.40원 상승한 1,204.0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봉쇄가 다시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만명을 넘어서면서 일일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술집 영업중단조치를 단행하는 등 봉쇄를 다시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봉쇄강화조치에 미 증시는 반락했으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 관측됐다. 금일환율은 경제 봉쇄 강화에 따른 리스크오프 분위기를 반영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기말 이월 수출네고물량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00.00 ~ 1207.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16.28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40원 ↑
- 美 다우지수 : 25015.55, -730.05p(-2.8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4.4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56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